



2026. 3. 3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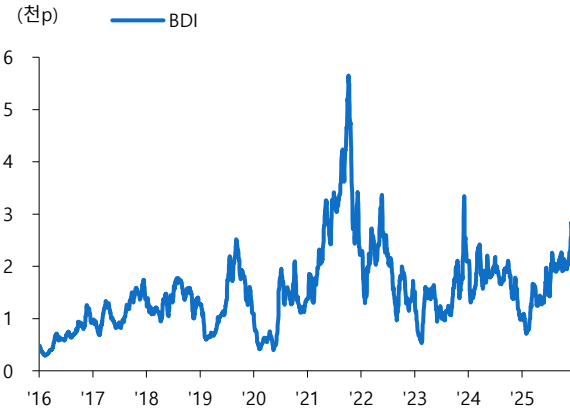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1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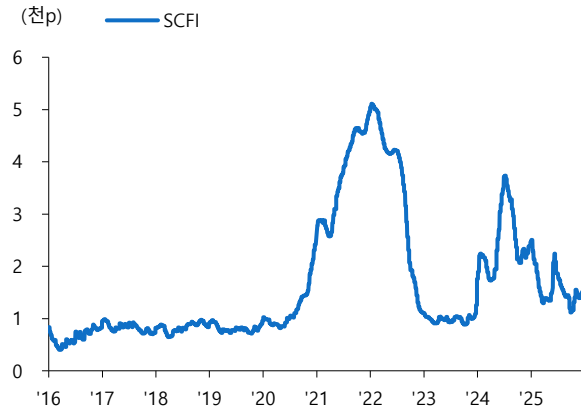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8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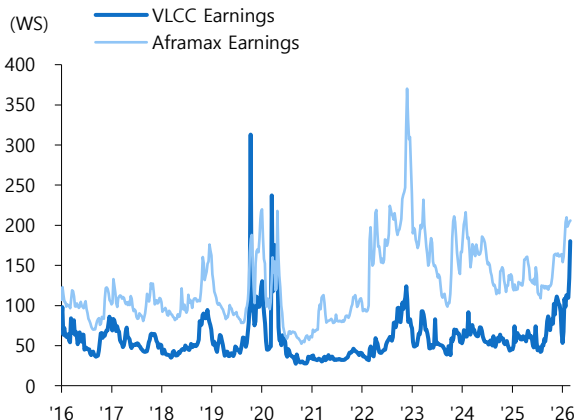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40.0p (+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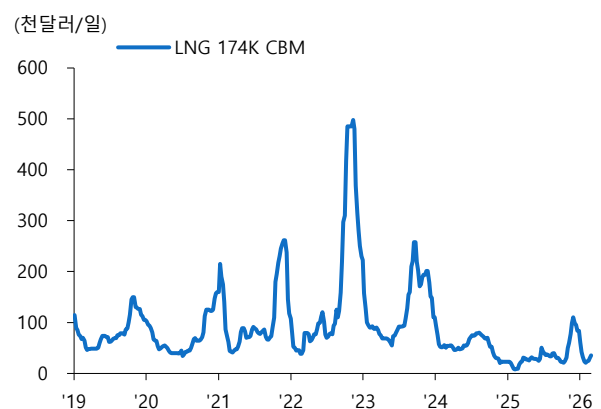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33.1p (+81.6p WoW)



VLCC Spot Rate 180.1WS (+45.9p WoW)



LNG Spot 운임 35.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Liner operators take U-turns and oil exports risk being shut-in as assault on Iran kills Khamenei (TradeWinds)

<https://zrr.kr/yrCbNF>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확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급감했고, 일부 선사들은 운항을 중단하거나 회항 조치를 취해 하루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 흐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해짐. 대체 인프라로는 800만~1,000만 배럴가량의 실질적 공급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45척의 VLCC 물량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후 긴장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미국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해협 봉쇄 여부와 유가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짐.

QatarEnergy halts LNG production after attacks on its facilities, triggering gas price surge (Upstream)

<https://zrr.kr/egl4we>

Qatar Energy 시설이 공격을 받아 North Field LNG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럽 가스 가격 지표 TTF가 40%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됨.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해상 운송 차질을 넘어 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공급 위협이 물리적 생산 차질 단계로 격상됐다고 전해짐. 카타르의 글로벌 LNG 공급 비중을 감안할 때 아시아 시장에도 즉각적 영향이 예상되며 단기간 내 생산 정상화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짐.

US-led coalition raises Hormuz threat level to 'critical' as two more tankers attacked (TradeWinds)

<https://zrr.kr/VziC3E>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군인 연합해상군 산하 합동해상정보센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해상 안보 위협 등급을 'critical'로 상향했으며 최소 네 척의 상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됨. Sea La Donna, Hercules Star, MKD Vyom, Skylight 등이 미사일이나 발사체 공격을 받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 선박은 화재 진압 후 항해를 이어갔다고 전해짐.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산하 Critical Threats Projects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 교통을 보복 차원에서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통항 지연으로 역내 항만 주변 혼잡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짐.

Tsakos confirms inking first LNG carrier newbuildings in seven years (TradeWinds)

<https://zrr.kr/ecyXEQ>

Tsakos Group이 HD현대중공업에 174,000㎡급 LNG 운반선 2+2척(확정 2척·옵션 2척) 발주를 추진하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LNG 신조 시장에 복귀했다고 보도됨. 이는 기존 LNG 보유선 2척 대비 가스선 비중을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미국 셰일가스 수출 증가와 유럽의 대러시아 가스 대체 수요 확대 속에 그리스 선주들의 LNG 시장 재진입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전해짐. Tsakos는 구체적 고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LNG 시장 성장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브라질·미국 연계 프로젝트 가능성도 언급된다고 알려짐.

South Korea's KMTC named as owner behind six Hyundai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ZwV8vj>

KMTC가 HD현대그룹 조선소에 1,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약 3,724억 원)을 발주했다고 전해지며, 이번 계약으로 신조 잔량은 총 10척으로 확대됐다고 보도됨. 회사는 9,000TEU·1만3,000TEU급 발주에 이어 선형을 다변화하며 선대 대형화와 노후선 교체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피더선 부문이 상대적으로 발주 공백 상태라는 평가 속에 그리스·미국 선주들까지 소형 컨테이너선 신조에 진입하는 흐름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전해짐.

주한영국대사,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캐나다 잠수함 협력 점검 (연합뉴스)

<https://zrr.kr/Vwax0k>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3천톤급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건조 현장과 자동화 설비, 스마트 야드 기반 생산 시스템을 둘러봤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한화오션이 영국 방산업체 바콕과 함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영 방산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해짐. 장보고-III 배치-II는 해당 사업에 제안된 모델로 영국산 어뢰 발사관과 무장 제어 체계, 잠수함 내 이산화탄소 제거기 탑재가 예정돼 있으며 양국 협력 구조가 캐나다 산업 기반 강화와 잠수함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공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